

여수 작가·지역 연극인들이 전하는 여순사건



23일 전남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연극 '붉디붉은 동백이 다 지기 전에' 쇼케이스를 앞두고 여수 문인과 배우 등이 연습을 하고 있다. <강경아 시인 제공>

'붉디붉은 동백...' 원작 강경아 시인 등 문인·배우 참여 23일 여수 전남문예회관에서 쇼케이스·관객과의 대화 등

"여수 출신 작가가 대본을 썼고 지역의 연극인들이 참여를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수 예술인들이 의기투합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이죠."

시를 집목한 연극 '붉디붉은 동백이 다 지기 전에'의 원작을 쓴 강경아 시인은 이번 작품 의미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시인은 고향 여수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의 진실 등을 담은 시와 에세이를 엮어 지난 2022년 '맨발의 꽃잎들'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강 시인은 시와 에세이가 아닌 극본을 토대로 여수의 상흔과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극만큼 임팩트있게 진실을 전하는 데 강력한 장르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여순사건' (1948년 10월 19)을 다룬 연극 '붉디붉은 동백이 다 지기 전에' (각색·연출 김두혁, 조연출 한상필) 쇼케이스가 열린다. 23일 오후 5시 여수 전남문예회관에서 선보이는 쇼케이스는 극단 이랑이 주최하고 여수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가 후원한다.

연극 원작자인 강 시인은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여순사건을 다룬 대본이 거의 없다. 생각만큼 관심도 없어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역의 시인들을 비롯해 예술인들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강 시인의 '남녘의 땅, 여순'이라는 시와 '애기삼'이라는 시가 삽입돼 의미가 깊다. 모두 여수의 아픔과 역사적 고통이 함의돼 있는 시다. 작품을 주는 울림은 오랜 여운을 준다.

"붉다고 푸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어느 누구 하나/ 불순분자라고 손가락 총을 쏘지 않는다// 무질서의 포화 속에서 꽃은 꽃대로/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서로가/ 한데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 꽃대는 난간 벽을 타고 푸른 하늘로 오르고/ 관 짝 같은 구멍이에 총구를 세운 모국어/ 흠뻑새 물신 풍기는 해방조국의 땅에서/ 국가는 왜 우리를 버렸다..." ('남녘의 땅, 여순' 중에서)

당초 이번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강 시인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지난해 근로자문학회 극작부문 수상작 '붉디붉은 동백이 다 지기 전에'를 모티브로 쓰여졌다.

그는 "이에 앞서 2022년 여순10·19 평화인권문학상 시상식에 올릴 연극 대본이 필요했는데 사정상 선보이지 못했다"며 "다행히 지난해 근로자문학회 극작 부문에서 수상한 것이 계기가 돼 이번 무대 공연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쇼케이스 무대는 모두 3부로 펼쳐진다. 먼저 1부에서는 연극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강 시인은 "이 연극에는 여수 연극배우들 외에도 김정애, 성미영, 서수경 시인 등 여수작가회의 회원들이 무대에 선다"며 "다들 너무 거창한 의미보다는 작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2부는 이정훈 평론가와 강 시인의 사회로 '시대 공감 토크톡'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작품 각색과 연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명식 등 1인 3역을 맡은 극단이랑의 김두혁 대표, 육순 역의 김정애, 춘자역



강경아 시인

의 김지연 배우, 여수시여순사건지원단 김두길 팀장, 여수 유족회 대표 서장수 씨 등이 함께 해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여순10·19 그날의 노래'를 주제로 공연 무대도 펼쳐진다. 3부에서는 싱어

송라이터 서혁신 가수는 여순10·19사건의 비극적 서사를 담고 있는 '애기삼' (조승필 작곡, 강경아 작사)을 들려줄 예정이다.

주최 측은 쇼케이스를 매개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8월 31일(오후 5시), 9월 1일(오후 4시) 전남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강 시인은 끝으로 "대본으로만 머물 수도 있었는데 이번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여수를 배경으로 여수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해 '여순10·19' 진실이 하루 속히 온전히 규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인은 2013년 '시에'로 등단했으며 시집 '푸른 독방' 등을 펴냈다. 여수해양문학상, 제1회 여순10·19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작가회의 여수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재즈, 뉴에이지를 입다 '뮤즈포엠' 콘서트

카페뮤지엄, 21일 피아니스트 이다진 출연

재즈 피아노의 선율에 뉴에이지 음악을 입히다! 카페뮤지엄 CM(이하 CM)이 144번째 라이브 콘서트 'Friday Live in CM'을 오는 21일 오후 8시 CM에서 펼친다. 이번 주인공은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이다진(사진).

이번 공연은 모던재즈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그의 자작곡들을 재즈 트리오로 감상하는 시간이다. 정재원(베이스), 황의석(드럼)이 함께 출연해 뉴에이지풍 멜로디를 들려줄 예정이다.

2019년 '이다진, 한희희 싱글 앨범-문'으로 데뷔한 이다진은 국제예대 실용음악과(재즈피아노 전공)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재즈밴드 'All Blue Hardbop Quintet' 멤버로 활동했으며 가수 정세운과 함께 음악방송 활동 등을 펼쳐왔다.

'Faint glow', 'Que Sign'을 비롯해 '그날을 기억하세요?', 'Bounce game', 'Down Library', 'Empty'와 같은 그의 다양한 자작곡들



을 만날 수 있다.

'End game' 등 재즈와 뉴에이지풍을 결합한 미니멀한 멜로디의 작품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근게잡긴 문에/ 기대어 올려다보는 천장은/ 허전한 방을 채우려 했지/ 차가운 달빛

에 난/ 흠어진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마저 가라앉고"(대표곡 '문' 중에서) 등 서정적인 노랫말은 이목을 사로잡는다.

이다진은 "생애 처음으로 전체 레퍼토리를 자작곡으로 채운 공연이라는 의미를 더한다"며 "대중에게 친근한 멜로디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곡들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ACC, 서남아시아 유물 구입 나서

7월 5일까지 전통의복·건축 등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을 일컫는 수사다. 아시아 문화를 모티브로 창작, 교류, 교육, 연구 등을 전개해 세계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 자원의 원소스다. ACC는 그동안 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이 이번에는 서남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유물 구입에 나섰다.

오는 7월 5일까지 서남아시아 권역의 아시아 전통문화를 비롯한 소장품 구매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전통의복, 음식문화, 전통음악, 공연, 공예, 종교, 신화·설화, 도시문화, 건축, 세계유산 등이 대상이다. 매도 희망자는 신청서와 유물 사진 등 서류를 ACC 연구조사과 자료관리팀 기증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아시아문화박물관은 누산티라 컬렉션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아시아 관련 유물들. <ACC 제공>

(17~20세기 인도네시아 생활용품과 예술품), 무카카카와 외양-토포 컬렉션(인도네시아 그림자 인형극과 관련) 등 아시아문화와 연관된 자료를 소장 중이다.

여직원 학예사는 "이번에 구입하게 될 서남아시아 권역 문화자원들은 ACC가 향후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미있고 다채롭게 활용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 창작실' 입주 작가 모집

공유 오피스를 활용한 '문학 창작실'에 입주할 작가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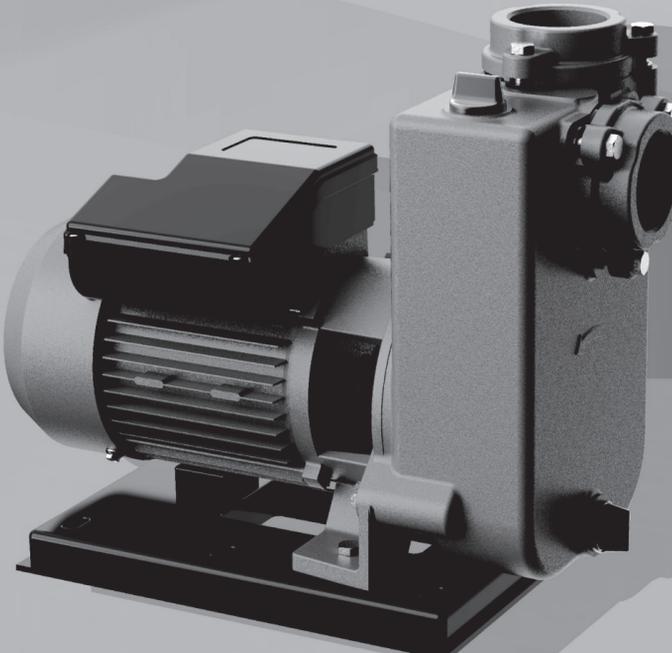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문학창작실 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7월 1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3개 공유오피스 공간을 창작실로 이용할 4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문학창작실 이용지원사업은 창작에 매진하기 어려운 작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작가들이 집이나 직장 근처의 창작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광주의 경우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5-6(영효빌딩 9층)에 입주하게 된다. 지원자는 6월 17일~7월 1일과 7월~9월 중 하나의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작가는 3개월 간 창작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학 분야에서 신춘문예에 당선됐거나 신인문학상 수상, 문예지 작품발표를 비롯해 단행본 출간 등 공식적 창작활동 경력이 있는 작가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는 해당 문학창작실이 있는 소재 지역에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